

임실군 상성마을, 문화특화지역 된다

문화부 공모사업 선정·추진... 2020년까지 총 6억원 투입
임실상성문화마을추진단 주축... 상성예술농활캠프 진행

임실군 상성마을이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상성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6억원이 투입되며, 임실읍 상성리 상성마을 주민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임실상성문화마을 추진단을 주축으로 건축과 공간재생, 공동체 문화기획 그룹인 '임실문화연구소 스페이스'와 함께 추진한다. 분야는 생활문화와 예술문화·문화교육·공간문화·마을미디어·주민역량강화 등 총 6개다.

추진단은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상한 뒤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미 지난 5월 상성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발대식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실행사업 분야별 참여 전문가팀이 마을 답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마을이 가진 고유의 인문·역사·자연·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문화교류 분야 사업의 일환인 2018 상성예술농활캠프 - 임실할매들과 똥개아이들의 똥개동락이 진행된다.

캠프에 참석하는 청소년은 약 15명 정도이며 상성마을에서 3과 4일 동안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 문화를 경험하고 어른들의 삶의 방식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알아내고, 이를 청소년들과 전문 예술가의 시각으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될 프로그램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상성마을 지도 만들기', △마을 주민을 위한 '생활가구 리폼 제작소', △즐거움 상성마을 공연과 SNS 홍보 영상 만들기 등이다.

청소년들이 팀을 나누어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 저녁(29일)에는 예술농활캠프 결과 발표회 및 상성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도 마련된다.



이남재 과장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상성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 나가겠다"며 "마을공동체의 삶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고유한 문화마을 브랜드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 태권도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외국 대학생들이 무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캠프를 즐기고 있다.

무주 태권도원 "월드문화캠프 왔어요"

국제청소년연합 주최 월드문화캠프 '막바지'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하는 2018 월드문화캠프 2주차 일정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태권도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외국 대학생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무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캠프를 즐기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매일 마인드강연, 레프팅 등을 통해 '절제', '도전', '연합'의 정신을 배우고 있다. 월드문화캠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등 50개국 청소년 41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월드문화캠프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국 교육부장·차관 및 대학 총장들도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마인드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월드문화캠프는 오늘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11박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영화노조, '포괄임금제 표준계약서' 소송서 패소

노조 "표준계약서 게시하라" 소송
법원 "의무는 당사자인 일부에만 있어"

포괄임금제가 포함된 영화계 근로자들의 표준계약서가 유지되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가 국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2017년 표준근로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낸 이행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19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화노조,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

국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산업 노사 단체들은 지난 2014년 10월 영진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자사, 배급사, 상영사 등과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진위는 영화산업 노사가 이 협약에 기초해 2015년도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시간급용, 포괄임금용 2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2017년 단협 교섭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43개 제작사 등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에 단협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

두 단체는 같은 해 단협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반영한 개정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영화노조는 영진위와 문체부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게시를 청구하는 2017년 표준계약서는 원고와 일부 사용자 위임을 받은 협회·조합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영진위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2017년 표준계약서 게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한국전통문화전당, '제2기 전주 수공예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수공예 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11월까지 10주간 수공예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과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2기 전주 수공예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제 1기 아카데미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총 5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전당은 수료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공예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들을 구성해 이번 2기 아카데미를 준비했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상품개발반과 유통마케팅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은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을 시작으로 10주간 매주 목요일(상품개발반)과 금요일(유통마케팅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교육을 완료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마지막 시간에 참여 수강생들이 팀을 구성해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특히 심사를 통해 우수 상품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상품개발비 또는 마케팅 비용이 현물로 지급되며, 전당의 2019 전주 수공예 상품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금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의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오는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생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비는 10만원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박물관,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개막

국립전주박물관은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8월 19일까지 어린이박물관 내 시민갤러리에서 진행한다.

25일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그림전은 지난 달 25일 치러진 제28회 어린이문화재그리기잔치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 마련됐다.

앞서 박물관은 전문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18명, 입선 16명을 선정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는 '고종황제어보'를 그린 전주 삼천초에 재학 중인 김시운 어린이(3학년)가 수상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